

결 의 안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이 발발하였다. 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전쟁으로 국제법과 유엔 질서를 위반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국가적 범죄 행위이다. 현 시점에서 전쟁은 8개월째로 접어들었으며, 러시아의 핵위협으로 제3차 세계대전 전야를 방불케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의 화마를 겪었음에도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 와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서방 세계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동질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강력한 책임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오늘 (2022. 10. 13) 개최되어 국내외 21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연합포럼'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2.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지난 3월 민간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현재까지 식료품과 구급약을 포함해 150여톤의 물자가 자체 물류운송망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전달된 바 있다.
3. 학전 일로에 놓인 현 시점에 국내외 피란민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이 절박하다는 것을 오늘 포럼을 통하여 분명히 인식한다.
4. 이에, 이 포럼에 참여한 기관과 단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옮겨

울을 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인도적 지원을 해 나가기로 결의한다.

5.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참여가 대내외적으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를 위해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극 공유하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6.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강력히 지지하고, 전쟁 중과 전쟁 후에도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2. 10. 13.

결의안 채택 기관 및 단체 :

1. 우크라이나지원공동대책위원회
2. 한국교회봉사단
3. 세계성시화운동본부
4. 재우한국선교사협의회
5. 두란노
6. 사랑글로벌프렌즈
7. SOLVE CARE
8.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9. 스쿨임팩트
10. 한국마스크산업협회
11. 프로보노국제협력재단
12. ISF 국제학생회
13.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14. SLP 소울러브피플
15. 그린닥터스

16. 유라시아경제인협회
17. 박광식뮤직인스티튜트
18. 주한우크라이나공동체
19. 밀알복지재단
20. 글로벌호프
21. 경상국립대SDSs센터

이상 21 곳